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향해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 현장 속으로

글 정수희 사진 김재이

7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KISS 2024; Korea Int’l Safety & Health Show 2024)가 열렸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안전보건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보건 전문 전시회로 산업안전보건의 집약체로 불린다.





매년 7월은 일터 안전보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업 안전보건의 달’이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해부터 확대 및 개편되어 올해로 57회를 맞이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는 지난 6월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 및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희생자를 위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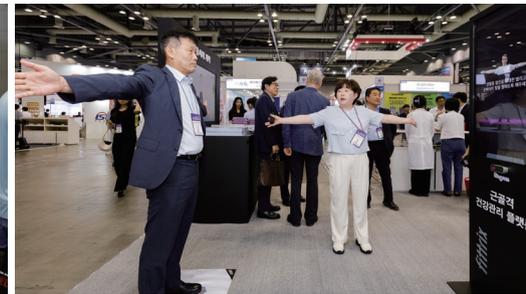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열려**

2024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와 안전보건 세미나·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을 중심

으로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고 산재예방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안전보호구협회·경연전람이 주관·운영하며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국제 안전보건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전시 회장을 찾은 관람객만 3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6.4% 증가했으며, 6개국 250개 안전보건 전문기업이 참가해 950개 부스를 꾸려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난해 참가 대비 30개 사가 늘었다.

특히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장을 ▲산업안전 및 보호구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 ▲공공서비스 및 공공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 ▲화학산업 안전 및 방재 등 5개 분야의 ZONE으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올해는 ▲방폭기기와 방호장치 관련 기업을 모아 별도 분야로 새롭게 구성했다. 또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산



업현장별 맞춤형 도슨트 투어를 실시했으며,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되어 랜선 관람객도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AI 활용해 다양한 근골격계 평가시스템 운영

전시회에서 돋보였던 기술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이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AI 활용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는 쾌적한 작업환경이다. 일터가 건강해야 노동자도 건강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평가시스템은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신체 구조를 측정해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을 확인 및 예방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자 스스로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 안전문화 확립 활동이다. 이에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방문객 대상으로 레고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부적절한 작업장 설계 현장과 올바른 작업장 설계 현장에서의 작업을 비교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방문객에게 노동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업현장의 정보를 안내하는 등 여러 개선 방법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근골격계 건강관리 플랫폼인 '신체측정 AI 비서 피트릭스'와 협업해 근골격 운동기능 측정 AI 비서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트릭스는 신체 특징과 운동기능 측정 영역을 AI 기술과 스포츠 의학의 지식을 결합해 누구나 쉽게 신체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헬스케어 서비스다. 자세와 체형을 측정해 어깨가 불균형한지, 척추의 좌우 기울기, 골반 전위, 족부 압력 분포, 좌우 균형도 등 시를 활용해 분석해 종합적인 신체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전송하면 시가

맞춤 운동을 알려주며 코칭하는 등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생애주기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건강과 운동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스에서는 ▲SMART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SMART 산업보건기술자료 ▲SMART 산업보건교육 ▲한마음혈액원 헌혈서비스 ▲뇌기능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산업보건기술교육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안전보건 현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이어졌다. 이번 안전보건 세미나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교육강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위한 정책 연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 'PSM 체계구축', '직업건강' 등 전국 사업장의 보건관리 활동 중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문화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 ‘2024 산업안전보건의 달’ 지역행사

### 서울지역본부

### ‘보건·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장 간담회’ 개최 보건안전문화 관리체계 실천 인프라 구축 포럼

서울지역본부는 7월 11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보건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건·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정부 정책을 사업장에 전달하고, 사업장 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사업장 보건안전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보건안전문화 관리체계 실천 인프라 구축



포럼 ▲직업병 사례 ▲건강증진활동 기관 소개 ▲사업장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1부에서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이자형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안전보건공단 고광재 서울광역본부장이 각각 ‘보건안전 정책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산업보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직업병안심센터 황정호 국장이 직업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마음의 숲, 금천구 보건소 등 기관에서 건강증진활동 소개가 이어졌다. 롯데시티호텔마포와 ㈜디앤오의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건강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교육장 옆 휴게공간에서는 서울교육사업국, 서울건강진단국, 한마음혈액원 등 부서별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사업홍보자료 및 기념품을 배부했다.



## 광주지역본부

###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의 달’ 보건분야 세미나 개최 규모별 산업보건 추진사례 소개

광주지역본부는 7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중·소 규모별 산업보건 우수 추진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예방과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황인호 보건안전컨설팅국장, CJ대한통운 광산A지점 신승희 선임,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나태웅 차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송재민 프로그이날 세미나에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광주지역본부는 산재예방 유공자에게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엘지이노텍의 양현아 사원과 태성산업(주) 광주공장의 정은섭 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실행하고, 현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받았다.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세미나는 다양한 산업보건 우수 추진사례와 예방 활동을 소개하며, 지역 내 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김훈철 본부장은 “광주 지역의 모든 노동자가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